

'2024 전주독서대전'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

전주시, 추진협의체 회의 열고 축제 준비 위한 방안 모색

책의 도시 전주시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전주독서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 '2024 전주독서대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2024 전주독서대전 추진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7번째 전주독서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서관·독서·출판·문화계 등 독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23명의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전주독서대전의 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성공적인 전주독서대전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주독서대전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듬해인 2018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책 축제로,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대표 가을 축제이다.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가을, 책 틈 사이로'를 주제로 지역서점과 출판사, 독서 관련 기관 등 전주시의 독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60여 개 단체들과 함께하며, 강연 및 공연, 전시, 체험, 북마켓 등 9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10월, 전주의 멋 그리고 맛'을 주제로 한 '전주페스타 2024'와 연계해 '국제한 지산업대전'과 통합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주한옥마을과 전주향교 중심의 축제 장소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으로 변경되며, 전주페스타의 콘텐츠를 활용해 축제장을 찾은



지난 1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 '2024 전주독서대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2024 전주독서대전 추진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전주시민과 전국의 관람객에게 보다 색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전주 올해의 책 일반부문의 이주혜 작가 △장르 소설의 조예은 작가 △최근 에세이를 펴낸 김중혁·김동식 작가가 △제로웨이스트 이소연 작가 등 순수 문학 뿐 아니라 연령별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해 예년보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매년 반복해 온 프로그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객이 더욱 알차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독서대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코백을 기증받아 재사용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 후에는 축제기간 사용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여름철 수돗물 집중 관리한다

전주시, 10개 광역배수지 현장점검·배수지 창문 방충망 점검 등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식수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용삼)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유충 관련 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돗물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수질 상태 집중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0개 광역배수지 수질상태 점검 △배수지 창문 및 방충망 점검 △수도꼭지수 100여 개소 표본조사 실시 등 상수도 공급단계별로 직접 현장을 찾아 수질 상태를 꼼꼼히 점검기로 했다.

특히, 시는 광역정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고산정수장과 용담댐(I등급) 등 정수처리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정수처리 및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날 맡까지 매일 배수지

수질 상태를 점검하고, 수도꼭지수 수질 점검시 잔류염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수질검사를 통해 잔류염소 농도가 적정히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수돗물을 집중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질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원수에서부터 가정 수도꼭지수까지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서도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싱크대와 세면대에 붉은 곰팡이 때가 자주 발생하고, 모기와 나방파리 등이 화장실이나 싱크대 배수구의 고인물에 알을 낳아 유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저수조 등의 철저한 관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35개 동 주민센터, 청결한 전주 만들기 '앞장'

동장·청소담당자회의 개최... 동 특색에 맞는 일몰제 중점 관리 구역 조성·취약지 점검 등 논의

전주시 35개 동 주민센터가 청결한 전주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13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35개 동 동장과 청소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각 동 특색에 맞는 일몰제 중점 관리 구역 조성 및 취약지 점검, 대시 민 홍보, 시민의식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선권역 수거 체계 시

행과 더불어 도입된 일몰 후 배출제 조기 정착을 위해 각 동의 취약지를 함께 점검하고,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선권역 수거 체계 시행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지역의 실제 수거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각 동별 주요 도로변에 일몰 후 배출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

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매주 2회 동별로 수거 여부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결과에 따라 업체 처분을 검토하는 등 골목골목 빈틈없는 감시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와 35개 동 주민센터는 일몰 후 배출제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자생단체 및 상인회 등과 유기적

으로 협조해 상가 일대와 대로변, 간선도로 등 동 주요도로를 순찰해 해당 제도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각 동의 문제점은 해당 동의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동의 협조를 받아 전주시 취약지를 집중 점검하고, 도시의 품을 벗겨낼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에서 일몰 후 배출제 등 새로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해준다면 보다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어 제도 조기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수도요금 전자고지서 신청 시 '할인'

전주시,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받으면 월 200원 요금 혜택

전주시가 환경을 보호하고, 고지서 발행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전주시민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용삼)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종이 아닌 문자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등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월 2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돗물을 이용하는 각 가정에서 전자고지서를 이용할 경우 종이 사용량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효과는 물론, 연간 9300만원에 달하는 종이고지

서 발행 관련 예산의 약19% 정도를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시민들도 월 200원씩의 요금할인과 고지서 분실·훼손으로 인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 신청은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누리집(www.jonju.go.kr/water_m) 또는 전화(063-281-6860)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자(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 요금액의 1%, 최대 5000원의 할인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동킥보드 전기 충전시설 안전 점검

시, 폭염으로 인한 화재 예방

전주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주차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보도 위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기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역에서는 3,800여 개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80개의 전동킥보드 충전시설이 보도 위에 위치해 있다.

이에 시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전기 충전시설의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기안



전 합동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인입구 배선 및 유내배선 점검 △전기 충전시설 안전 점검 △누전차단기 설치상태의 적정성 점검 △충전기 접지 상태 등이다. /김옥기 기자



'여름휴가는 시원한 한옥마을에서'

전주시, 쿨링포그·얼음길·실개천·바닥분수 운영 등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에 다양한 쿨링 시스템을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고 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무더위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돕기 위해 현재 △주요 인도변 얼음길 조성 △플러딩포그 시스템 가동 △실개천 및 바닥분수 운영 △원터 천정형 선종기 가동 등 폭염 종합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마다 관광객이 붐비는 태조로와

은행로, 향교길 등 전주한옥마을 주요 거점 20곳에 대형 얼음(1.2x0.6mx0.25m) 2개를 1조로 구성된 얼음길을 조성해 거리를 지나는 관광객에게 시원함과 청량감을 선사하고 있다.

이어 지난 1일부터는 태조로와 향교길에 쿨링포그 시스템(인개분사장치)이 설치돼 관광객에게 시원한 힐링 쉼터를 제공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을 공기 중에 분사해 대기 온도를 낮춰 시원함을 주는 장치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초 가동 후 10초 휴식 방식으로 폭염 특보 해제 시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